

STAR CRAFT

HEART OF THE SWARM

차가운 원

카메론 데이튼

BILZARD
ENTERTAINMENT

차가운 원

카메론 데이튼

보름달이 떴을 때 나를 찾아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어린 제자여?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빛 때문인가요? 사알록이 오늘 밤 무척 밝습니다.'

답에 다가갔구나, 테리달. 보름달은 우리 기사단의 상징을 떠오르게 하지. 광전사의 원은 순수함과 집중, 생각을 나타낸다. 우리는 기사단의 일원이 될 때 그 모양을 가슴에 새기지.

'그게 달 때문인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 작은 원호가 모여 거대한 원의 둘레를 이루듯, 넌 아직 배워야 할 게 많다. 하지만 우선, 사알록이 광전사단에게는 성스러운 존재라는 것부터 알아 두거라. 아주 오래전부터 아이어의 수호자들은 달이 가르치는 규율 아래에 삶을 꾸려왔으니까.

'가르치다니요? 저건... 그냥 달이지 않습니까.'

어린 제자여, 아이어의 달이 별 중에서도 진귀한 존재임을 알고 있느냐?

'스승님,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프로토스는 수많은 세계에서 수많은 달을 보았습니다. 달 중에는 더 크고, 더 밝고, 또 더...'

테리달, 진귀함이란 사물이 지닌 물질적인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무결함에서도, 온전함에서도 진귀함을 찾을 수 있다. 사알록의 진귀함은 그 완벽함에 있다. 수학적으로 거의 완벽한 구체인 사알록은 전 은하계에서도 유일무이한 존재야. 우리의 하늘 위에 그런 달이 '놓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동족들이 암울한 시대에 가르침과 확신을 얻고자 그 순수함에 기대왔던 것도 마찬가지고.

'스승님 말씀은, 누군가 사알록을 저곳에 놓았다는 말입니까?'

테리달, 어떤 질문은 답이 없고, 또 어떤 질문은 때가 되어야 답에 다가갈 수 있단다. 하지만 순수함과 빛 질서는 지성의 열매다. 지성은 혼돈의 야만스러운 울부짖음을 잠재우지. 지성은 시끄러운 잡음 또한 조화로운 화음으로 만든단다.

지성은 우리가 신성시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며, 네가 받아들인 가르침의 핵심이란다. 너의 사이오닉 검을 발현하는 데 필요한 정신 집중에서부터 이 신성한 갑옷에 엮어 넣은 명료한 일념까지도.

자, 내가 그저 달에 대해 이야기나 하려고 널 부른 것 같은가?

'전... 아닙니다, 스승님. 정말로요. 스승님께서 제 입회 의식을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답에 다가갔구나, 테리달. 이리 와서 내 앞에 서거라. 이제 네가 우리 기사단에 처음으로 입회할 때가 되었다.

...

기습이었다. 그것도 끔찍한 기습.

'기습이라고?' 제라넥이 칼날을 빛내며 으르렁거렸다. '저그는 야생 짐승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히드라리스크가 쉬익 소리와 함께 접은 발톱을 더 포악하게 휘둘렀다. 공격은 적중한 지점을 잔인하리만치 정확하게 잡아 찢었다. 광전사의 보호막이 파란 유령 불처럼 희미하게 깜빡이며 히드라리스크의 공격을 막아낸 뒤 고갈되었다.

'멍청한 야생 동물이라도 기습은 할 수 있어!' 케다나가 쏘아붙였다.

케다나는 몸을 숙여 히드라리스크의 발톱을 스치듯 피했다. 그리곤 선명한 원호를 그리며 장창을 휘둘러 강렬한 사이오닉 에너지 곡선을 만들었다. 히드라리스크는 갈기갈기 찢긴 채 쓰러졌다.

케다나의 텔레파시는 전장의 안갯속에서도 변함없었다. '집중하라, 광전사여. 우리는 수적으로 열세다.'

제라넥에게는 그 경고가 너무 늦게 닿았다. 저글링 두 마리가 히드라리스크 옆의 빈틈에서 뛰어올라 제라넥을 땅에 쓰러뜨렸다. 그의 텔레파시 음성이 격노와 고통으로 들끓었다. 이 괴물들 사이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진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케다나는 검고 흐릿한 움직임으로 몸을 회전시켰다. 네라짐 기사단의 어둠의 춤이었다. 그녀의 일격은 저글링과 제라넥을 함께 절단했다. 제라넥의 비명이 고요해졌다.

테리달은 그것이 냉엄한 자비임을 알았고, 발치에 쓰러진 히드라리스크 시체에서 물러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곤 어리석게도 자신에게서 등을 돌려 다른 암흑기사의 숨통을 끊으려던 다른 생물체에게 뛰어올라 사이오닉 칼날을 찔러 넣었다. 사냥감의 숨통을 거의 끊을 뻔했던 히드라리스크가 쓰러졌고, 테리달은 그 괴물을 옆으로 밀쳐냈다. 그 밑에는 네라짐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 테리달은 자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려 고통에 떨며 일어서는 그 암흑기사의 이름을 케레노스로 기억했다. 테리달은 그를 부축하려고 했다가 두 다리가 잘려 있는 것을 보았다. 너무 늦었다. 암흑기사는 다시 한 번 몸을 떨고는 그대로 잠잠해졌다.

흉터투성이 노련한 전사는 케레노스의 사라져가는 은폐장에 잠시 몸을 숨긴 채 눈을 부릅뜨고 전장을 살폈다. 새벽녘 사알록에 착륙했던 열두 명의 전사들 중 단 세 명만이 살아남았다. 손 쓸 새도 없이 이런 지경이 돼버렸다.

처음엔 추적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히드라리스크의 무수한 가시 공격에 초토화됐다. 암흑기사들은 형제들을 도우려고 신속하게 그 앞으로 뛰어들어, 저그의 다음 일제 공격을 차원검으로 차단했다. 거미 같은 은빛 다리가 엇갈린 채 모랫바닥에 쓰러진 추적자를 구하기는 너무 늦었지만, 그들에게 죽음을 안긴 저그에게 복수하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 테리달은 은폐장을 가동한 두 전사가 창백한 사막에서 외계 생물체의 피를 잔뜩 뒤집어쓴 채 흐릿한 형체가 되어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암흑기사는 근접전에서 악몽 같은 존재였다. 그들의 강력한 은폐장 능력은 한 구역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하지만 은폐장은 저그의 기습공격엔 도움이 되지 못했다. 홀로 살아 있는 저그와 죽은 저그에 둘러싸인 채 고립되어, 그렇게 홀로 제압당했다.

광전사들은 망설임 없이 혈전에 뛰어들었다. 수적인 열세를 잘 아는 암울한 전사가 되어. 광전사는 네라짐의 암흑기사같이 어둠 속에 숨지 않으며, 은밀하게 공격하지도 않는다. 제일 먼저 돌진해 선제공격을 가한다. 여태까지 수많은 전장과 세계에서 그래 왔다. 테리달의 에익실리움 광전사들도 다를 바가 없었다. 그들은 칼을 뽑은 채 거리를 좁혔고, 용솨음치는 무언의 격노로 저그를 들이받았다. 갑자기 검은 피안개가 뿌러지고 조각난 사지가 나뒹굴었다. 광전사의 돌격이 저그를 격퇴해 기습을 막아내고, 저그는 거의 물러서는 것처럼 보였다. 거의 그랬다.

그러나 두 번째 저그 부대가 증오에 싸여 울부짖으며 대군주의 창자에서 땅으로 후드득 떨어져 내렸다. 놈들의 반격은 가차없었다. 저그가 동족의 시체 너머로 미끄러지듯 기어 나와 광전사에게 달려들자 모두 그 발톱에 휩싸여 의식을 잃었다. 광전사들은 모두 목숨을 잃고 꿈틀거리는 저그의 시체 아래 묻혔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테리달을 포함해 사알록에 착륙했던 여섯 명의 광전사들은, 테리달을 제외하곤 모두 저그와의 교전 경험을 인정받아 의회에서 선별된 노련한 전사들이었다. 그들은 암흑기사와 추적자들이 사알록에 있는 백악질 토양의 소협곡 내부에 숨겨진 저그 주둔지를 정찰하러 갈 때 한 쌍씩 동행하는 지원 임무를 받았다. 이 임무는 추후 공격을 위해 주요 방어 시설을 파악, 표시하는 잠입 임무였었다. 피를 흘릴 일은 없을 거라고 예상했었다.

테리달은 고개를 흔들었다.

'은폐장이 가동된 수송선을 타고 왔다면 아무 일 없었을 거야. 하지만 아둔한 적에게 왜 선체를 숨기겠어? 이 괴물들은 궤도 진입 경로를 추적하거나 행성과 수송선의 차이점도 모를 텐데...'

임무는 실패했다. 이제 테리달은 히드라리스크와 저글링 스무 마리에 암흑 기사 둘, 아니 지금까지 살아남은 단 한 명의 암흑기사인 케다나와 함께 맞섰다. 그녀는 적에게 둘러싸여 어지러운 칼 놀림과 사이오닉의 격노로, 흐르는 피로 수많은 낫 발톱을 막아내고 있었다. 테리달은 케다나가 마지막 투지를 불태우는 것임을 알았고, 캐레노스의 시체 뒤에서 뛰어올라 의식을 잃어가는 케다나에게 쏟아지는 집중 공세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했다.

히드라리스크 세 마리가 테리달을 쫓아왔다. 성공이었다. 저글링 한 쌍도 굶주린 듯 킁킁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테리달은 히드라리스크가 발사한 가시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오는 소리를 들곤 몸을 급히 돌려 회피했다. 그는 몸을 계속 회전시켜 저글링이 내려치는 발톱에 맞섰고, 팔목에 장착된 무기의 소립자 에너지가 그 발톱을 정확하게 갈랐다.

고통에 둔감한 저글링은, 분노에 가득 차 적을 필사적으로 먹어 치우고 죽이려고 피를 흘리며 뛰어올랐다. 테리달이 수련 받았던 대로 행한 그 신속한 대응은 본능적이었다. 괴물들과 오랜 전투를 치러오며 반사적인 회피와 반격 명령이 근육 속에 각인되었기 때문이리라. 테리달은 호를 그리며 저돌적으로 뛰어오른 저글링에게 능숙한 움직임으로 몸을 낮추곤 칼날을 들어 올려 갈랐다. 두 조각이 나 꿈틀거리는 저글링의 시체가 테리달의 뒤편에 있는 창백한 달빛 먼지로 곤두박질 쳤다.

죽음의 울부짖음이 테리달의 정신에 어지럽게 울려 퍼졌고, 동료 광전사들의 음성이 암울한 선율이 되어 찾아들었다. 칼라는 프로토스의 생각과 감정에 연결되어 있으며, 테리달은 그의 에익실리움 동료들이 차갑고도 가혹한 슬픔과 함께 죽음을 맞는 것이 느껴졌다.

'진정해.' 테리달이 텔레파시를 보냈다. *'진정하고 계속 움직여.'*

'놈들은 온통 이빨투성이야.' 케다나가 응답했다. 암흑기사의 정신 음성이 간신히 긴장을 유지한 채 다시 들려 왔다. *'그리고 너무 많..'*

케다나의 말이 고요함으로 바뀌자, 테리달은 그녀가 세 마리의 저글링에 깔렸다는 것을 알았다. 더 많은 가시가 허공을 가르자 테리달은 몸을 날리며 건틀릿을 얼굴 위로 들어 올렸다. 갑옷 위로 날카로운 충격이 느껴졌고, 땅으로 넘어지자 금속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테리달이 구르듯 일어나자 두 마리의 히드라리스크가 공격 범위 내로 들어오는 게 보였다. 머리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는 한 놈의 가시투성이 껍질 주변엔 먼지 구름이 음산하게 휘날렸다.

칼라의 메아리가 조용해졌다는 건 남아 있는 저그와 혼자 싸워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테리달은 다음 공격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괴물들이 테리달을 중심으로 맴도는 동안 아래를 힐끗 내려다봤다. 오른쪽 건틀릿이 부서져 있었다. 이제 한 개의 사이오닉 검만 쓸 수 있다. 보호막도 고갈됐다.

우두머리 히드라리스크가 쉬익거렸고, 가시가 발사되는 부분의 껍질을 움츠리며 몸을 뒤로 활처럼 굽혔다. 어깨에서는 흙먼지가 더욱 많이 날리고 있었다.

'흙먼지라... 이 저그 놈들은 땅속에서 막 튀어나왔군.'

테리달은 그 사실을 깨닫곤 앞으로 움직였다. 그가 히드라리스크를 향해 세 걸음을 달려 뛰어오른 뒤 몸을 둥글게 말자 아래쪽에서 가시가 날카로운 소리로 허공을 갈랐다. 히드라리스크는 테리달의 움직임에 놀라 몸을 낮춘 뒤 옆으로 기었다. 테리달은 땅에 내려앉은 뒤 히드라리스크와 싸우기 위해 몸을 돌리지 않고, 칼날을 집어넣은 채 괴물이 파고 나온 구멍으로 몸을 날렸다. 오직 이 공간만이 히드라리스크의 수많은 가시 공격을 피하고, 적에게 근접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곳이었다. 비좁은 통로, 바로 광전사가 가장 확실한 위력을 보이는 구간이었다.

테리달은 암흑 속에서 몸을 낮게 숙였다. 구멍 속에 난 동굴은 뭔가가 바글거렸다. 그가 획 하고 돌아서자 메마른 껍질이 땅을 후벼 파는 듯한 소리가 똑 하고 멈췄다. 딱딱 굽는 듯한 그 소리는 테리달에게 익숙했다. 두꺼운 껍질로 뒤덮인 저그 군대의 땅굴파기 명수, 바퀴였다. 테리달은 한 개만 남은 사이오닉 검에 다시 불을 밝혀 어둠 속을 활활 타오르는 파란 불꽃으로 밝혔다. 바퀴는 손이 땅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 눈은 차갑고 공허했으며, 주둥이는 이빨투성이었다. 빠죽빠죽한 입이 야성의 격노로 사악하게 벌어졌다. 바퀴는 동굴을 가득 채웠고, 두터운 발톱은 곧장이라도 공격할 태세였다. 쇠쇠거리던 소리가 포효하는 소리로 바뀌자 휘어진 동굴벽에서 자갈이 흔들려 떨어졌다.

테리달은 바퀴의 가운데 눈에 칼날을 찔러 넣었다. 그리곤 몸을 측면으로 움직여 놈이 극심한 고통으로 버둥대며 휘두르는 발톱을 피했다. 포효하던 울음소리는 점차 잦아들며 거품을 무는 혈떡임으로 변했다. 바퀴는 이내 몸을 부르르 떨더니 잠잠해졌다.

뒤쪽으로 다른 소리가 더 들려왔다. 히드라리스크가 땅을 파고 나왔던 구멍에 꾸덕꾸덕한 몸뚱이를 다시 밀어 넣는 소리였다. 어깨와 머리 부분이 벌써 동굴 안으로 불쑥 튀어나와 있었다. 테리달은 몸을 돌려 다른 손으로 히드라리스크의 가슴뼈에 있는 길쭉한 부분을 잡고 구멍 밑으로 끌어내려 머리를 동굴 안의 단단한 자갈 벽에 강하게 처박았다. 그리곤 바퀴에 찔러 넣었던 칼을 비틀어 빼낸 뒤, 히드라리스크를 동굴 바닥에 짓누르며 목 부분에 칼을 쑤셔 박았다. 히드라리스크의 구불구불한 몸체가 동굴 벽을 세차게 두드리자 주변에 흙먼지가 자욱하게 날렸다. 테리달은 히드라리스크의 머리를 절단하듯이 칼을 비틀었다. 하지만 세찬 몸부림은 계속 거세기지만 했고, 바위와 모래가 쏟아지며 동굴이 무너지는 바람에 뒤로 뛰며 물러났다. 구멍 입구가 무너지자 테리달은 칼의 푸른 불빛을 감췄고, 동굴은 무덤 속처럼 어두워졌다.

테리달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저그는 동굴이 무너졌을 때 테리달을 놓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기습 공격을 당했을 때 봤던 저그들은, 각자 움직이도록 놓아두니 그렇게 섬세하거나 지적이지 않았다. 이제 광전사 테리달의 생존여부는 놈들의 관심을 돌려 다른 곳으로 주의를 집중하게 만드는 것에 달렸다. 부스럭거리며 높은음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나자 저글링이 한 마리가 다른 저글링을 무는 시늉을 했고, 그 후 소리가 서서히 희미해졌다. 저그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었다. 테리달은 어둠 속에서 일어섰다.

'이제 뭐가 있나 볼... 잠깐!'

땅 위에 뭔가 있었다. 히드라리스크였다. 머리 위에 있는 바위 쪽에서 놈의 꼬리가 미끄러져 가는 소리가 들렸다.

'한 마리가 남은 게 이상하군. 야생 저그는 정찰병을 두지 않는데...'

그 생물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놈은... '먹이'를 먹고 있었다. 테리달은 먹이라는 그 말이 차갑고 뾰족한 고드름이 되어 마음을 꿰뚫는 것을 느꼈다. 히드라리스크는 프로토스의 전사이자 테리달의 동족을, 또 아이어를 잃은 후손들의 고귀한 수호자를 뜯어먹고 있었다. 테리달은 예전에도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집어삼킬 듯한 격렬한 분노를 애써 참았다. 그리곤 예전에도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그 분노를 냉정하고 더욱 응축된 격노로, 그리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날카로운 검날로 바꿨다.

테리달은 낮게 웅크린 채 상황을 살폈다. 저그는 군락지 주변 지역을 둘러싼,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생체 토양인 점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만 먹이를 먹는다. 즉, 저그의 주둔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었다. 아마 며칠이나 이동해야 하는 거리일 수도 있다. 이번 기습 공격을 한 저그들은 다른 적과 싸워 승리한 뒤 군락지로 돌아가던 중이었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정찰하며 이동 중이던 외딴 무리일 수도 있다. 어쨌든 테리달이 암전히만 있다면, 남아 있는 히드라리스크는 이동할 것이다. 한 손만 사용할 수 있는 사이오닉 검과 바닥난 갑옷 보호막으론 그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임을 알고 있었다. 테리달은 그 히드라리스크가 떠난 뒤 동굴에서 뛰쳐나와 임무를 완수할 수도 있었다. 그게 가장 현명한 행동이다.

하지만 허망한 일이다.

임무는 사알록에 서식하는 야생 저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계획됐다. 그 위험한 동물들의 군락지를 정찰한 후 지도를 제작하고 나면, 태양계 외부에 머무는 함대로 놈들을 말살하려고 했다. 강력한 화력을 갖춘 함대엔 군락지를 소탕하는 파괴자가 실린 경량 수송선이 편제되어 있었다. 사알록에 낙하할 만반의 태세를 갖춘 그 병력은 들끓는 야생 저그를 궤멸하도록 완전히 무장한 상태였다. 파괴자의 내부에는 지정된 적 대상이나 시설로 기어가 폭발하도록 설정된 소형 로봇인

기갑충 폭탄이 탑재돼 있다. 파괴자는 지상 병력 공격 시에 상당히 효율적이었고, 궤도 첩보부는 사알록에 서식하는 야생 저그가 저글링, 히드라리스크, 그리고 바퀴 같은 지상 병력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무리 위에 떠 있는 대군주 몇 마리는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파괴자가 공중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전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적에게 산산 조각날 것이다. 적은 파괴자가 공격해올 것을 대비해 뮤탈리스크로 무장할 것이다. 지금 사알록 군락에서는 프로토스의 존재를 감지했으니 파괴자의 공격에 대비해 뮤탈리스크를 사육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벌써 뮤탈리스크 부대가 완성되어 사알록 협곡 깊숙한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정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기막힌 유인책이었다. 게다가 집행관은 아직 이 속임수를 간파하지 못했다.

테리달은 동족의 운명이 마치 머리 위로 그늘이 지고, 자신이 어찌지 못하는 곳에 천둥 구름이 모여드는 것 같이 느껴졌다. 지상 공격밖에 하지 못하는 파괴자 부대는 소규모의 뮤탈리스크 무리에게도 손쉽게 전멸당할 수 있다. 함대는 사알록의 반대쪽 표면이 다시 나타나는 새벽녘에, 바로 테리달이 있는 곳에서 착륙할 예정이었다. 대재앙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난 지금 이 상태로 쓸모가 없어.'

밀실 공포증을 느낄 정도로 어두운 동굴 속에서, 테리달은 부서진 오른쪽 팔의 갑옷을 떼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머리 위쪽에 있는 히드라리스크가 먹이를 먹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오자 부상당한 곳이 걱정됐다. 건틀릿을 보니 금속이 구부러져 박살 나 있었다. 팔뚝에 있는 세라믹 심 결합 부위에 히드라리스크 가시를 하나도 아닌 두 개씩이나 맞았다. 손가락의 감각이 느껴질지도 의문이었다. 손에 힘을 주자 팔꿈치에서 뜨끈한 피가 흘러나오는 게 느껴졌다.

'불이 좀 있어야겠군.'

테리달은 남아 있는 한쪽 사이오닉 검의 끝 부분을 밝게 만들어 그 푸른 빛으로 다른 팔을 비쳤다. 그렇다... 건틀릿은 무시무시한 히드라리스크 가시를 막아냈고, 그때의 충격으로 뒤틀리며 테리달의 팔에 상처를 입혔다. 갑옷에 부착된 고지능 제어장치가 지압해준 덕분에 출혈은 적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직 팔에선 피가 흘러서 부상을 치유해야만 했다.

테리달은 사이오닉 검을 들고 동굴 주변을 살펴봤다. 그의 뒤편으로 난 길은 끝 부분 전까지가 죽은 바퀴 모양처럼 쭈글쭈글한 모양으로 약간 굽어져 있었다. 테리달의 앞에는 동굴이 무너질 때 떨어진 바윗덩이가 경사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 동굴을 무너뜨린 괴물도 함께 쓰러져 있었다. 목이 잘려 최후의 발악을 하다 죽은 히드라리스크는 돌 더미에 반쯤 깔렸고, 창백한 흙먼지 층이 괴물을 뒤덮고 있었다. 테리달은 얼굴을 찡그리며 슬며시 그 시체에다가 잘린 괴물 머리를 몸체에서 치워냈다. 주변의 자갈에 검은 액체가 더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더 큰 바위를 조용히 치워내고 히드라리스크의 배를 가르기

시작했다. 놈의 힘줄을 끊어 상처를 묶으면 지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테리달은 몇 년 전 테퍼러스 행성의 검은 잔디 습격 작전에서 이 방법을 이용해 집정관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다. 지금은 그 방법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할 생각이었다.

테리달은 히드라리스크의 배를 가르는 동안 기습 공격에서 목격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봤다. 저그가 정말 지성을 지닌 존재의 명령 아래 움직였던 건가? 그 지성이라는 게 그저 자신의 상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그저 야생 저그 스무 마리가 노련한 광전사들을 습격하여 어떻게든 모두 전멸시킨 것인지도 모른다. 단순히 운이 안 좋았던 것을 상대의 전술이라고 착각하는 것일까? 단 몇 분도 안 되는 사이에 아이어 광전사 다섯과 추적자 셋, 그리고 암흑기사 셋이 저그의 발톱과 가시, 또 이빨에 모두 목숨을 잃었다. 놈들은 기습 초반에 기동성이 좋고 잘 무장된 추적자를 먼저 집중 공격했고, 그 후엔 저글링이 몰려들어 암흑기사를 차단했다. 사정거리 밖에 떠 있던 대군주는 저글링보다 약간 더 똑똑한 수송선일 뿐이다. 하지만 그 존재는 그 아래에 몰려 있는 저그 군대에 인지 능력과 초자연적인 지각력을 마치 실타래처럼 연결시켜 보내주고 있었다. 단순히 운이 안 좋은 거라고?

'아냐.'

야만적인 생물들이 벌인 짓이라고 하기엔 그 기습 공격은 너무나 완벽한 작전이었다..

'나도 야생 저그들의 습성은 알아. 지금껏 우리 세계에서 놈들을 계속 소탕해 왔으니까. 이놈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 무언가의 조종을 받고 있던 거야.'

테리달이 답할 수 있는 의문이 아니었다. 그는 생물학적 반신인 초월체의 지배를 받는 저그와도 싸워 봤었다. 테리달은 건방진 인간 케리건이 군단의 통치권을 넘겨받았을 때 외계 생명체를 상대하는 전술을 새로 변경했으며, 마치 화석을 본뜨는 것처럼 고대 저그의 사냥법에 어설픈 테란의 전술이 꿰어 들어갔을 때의 역겨운 뒷맛을 기억하고 있었다. 최근 테리달은 사생아 여왕을 빼앗긴 저그의 광포함에 맞서 다시 전투 방식을 바꿨다. 그 혼란스러운 발톱과 굶주린 격노는 과거의 전투가 애들 장난인 것처럼 여겨지게 했다.

테리달은 저그를 잘 알았고, 놈들의 전투 방식도 잘 알았다. 또한 본능과 약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 값진 교훈은 지도의 구불구불한 등고선 같은 무수한 흉터를 온몸에 새겨가며 경험으로 얻은 것이었다. 그의 눈 한쪽도 플라자 공격 작전에서 저그의 강력한 울트라리스크를 처치하다 잃었다. 테리달은 한쪽 눈을 대가로 그런 지식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 거대한 괴물은 넬리스 행성에 있는 기도소의 차가운 돌 바닥에 조각나 쓰러졌다.

이토록 힘겨운 교훈을 얻은 것이 그가 선택된 이유였다. 집정관이 저그의 움직임이 가장 많다고 판단한 곳으로 케다나가 이동해 신호기를 설치하는 동안 그녀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지휘부는 테리달에게 명령을 내렸을 경우 그가 케다나를 이끌고 군락지의 중심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그에 관해 잘 아니까 말이다.

그리고 테리달은 집정관이 틀렸다는 것도 알았다. 저그는 무언가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에 의해서인지, 또는 무엇에 의해 명령을 받는지는 정확히 말할 순 없었다. 저그가 기습 공격을 했을 당시의 공격 진형은 케리건의 방식과 다르게 느껴졌지만, 정말 익숙한 것이었다. 대군주가 더 어설프게 제어하던 것은 동일한 느낌이었지만, 이전 전투에서 기억에 남았던 유려하거나 숙련된 움직임은 없었다.

'새로운 지성체가 나타나 죽은 여왕의 자리를 꿰찬 건가?'

어쨌든 이 일은 아이어를 수복하기 위한 현재 계획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테리달은 집정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 새벽녘에 시작될 공격을 멈춰야 했다. 이걸 이제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다. 프로토스의 인구 수는 이미 코프룰루 구역 전체에 걸쳐 자랑스럽게 빛나던 제국을 건설했던 때에 비해 치명적으로 감소해 극히 일부밖에 남지 않았다. 프로토스는 마지막 도박의 심정으로 방비가 허술해 보이는 적 주둔지를 얻기 위해 공격할 생각이었지만, 그곳에 있는 적은 사실 만반의 대비를 갖춘 상태였다.

테리달이 함대에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함대는 신속하면서도 흥포하게 공격할 만반의 태세를 갖춘 적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었다. 프로토스는 약삭빠른 적과 싸우기 위해 의회를 재소집하고, 전술을 재정비하기 위해 후퇴해야만 했다.

이 사실을 아는 이는 테리달밖에 없었다. 그는 눈썹을 찡그리며 칼라 내부에서 자신의 생각을 최대한 멀리 소리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함대는 의도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남았다. 의도적으로 그의 생각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이번 임무는 칼라를 사용하지 않는 네라짐이 요청한 것이며, 임무 유형은 잠입 공격이었다. 임무 목적은 프로토스가 행성 멀리까지 통신하는 데 필요한 더욱 강력한 사이오닉 파동에 야생 저그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다. 저그는 야생 상태에 있더라도 더 강한 사이오닉 파동 방출을 감지하는 초자연적인 본능을 가진 듯했다. 테리달은 그 이유를 확신하진 못했다. 프로토스의 사이오닉 파동이 초월체의 파동과 유사해서일까? 복잡한 난제를 파헤치는 것은 광전사에겐 맞지 않는 것 같으니 고위 기사에게 맡기는 게 최선이었다. 하지만 그는 저그가 나방이 불에 덤비듯 강력한 사이오닉 파동에 이끌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실 저그가 정신적인 여과망을 생성하는 훈련법이나 생체 능력이 부족하기에, 초자연적인 에너지에 더 민감하다는 이론도 있다. 이 여과망은 지성을 갖춘 집단이 텔레파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으며, 어린 프로토스는 이미 유년기에 종종 해로운 정신 교신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배웠다. 하지만 저그는 그런 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테리달과 동료들을 사알록으로 이동시킨 수송선은 텔레파시 기능 없이, 자동으로 짐을 내린 후 텔레파시 가능 범위 밖에 머무는 함대로 돌아가도록 설정되어 있을 뿐이었다. 함대에서는 분명히 이곳에서 발생한 일을 알고 싶어할 것이다. 현재 사알록의 반구가 함대 쪽을 향하고 있으니, 주력함에 탑재된 시각 판별용 스캐너로 아군이 기습당한 결과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테리달은 아군이 당한 기습 공격에 관해 집중관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전술적 관점으로 볼 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작전 초기부터 집중관에게 명확하게 전달된, 사알록에 있는 저그를 박멸한다는 임무는 테리달과 동료들의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밀어붙여야 할 일이었다. 헛수고로 끝난 초반 공격에서 후퇴하기 위해 이번 교전에 너무 많은 물량이 투입되었다. 에릭실리움의 임무가 실패한다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질 공습이 약간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지만, 그뿐이었다. 파괴자들은 케다나와 그녀의 다크템플러가 설치하기로 했던 신호기를 조준하지 않고, 그저 황량한 사알록의 표면 전역에서 적을 찾아 돌아다닐 것이다.

테리달은 머리를 흔들며 자신을 공포에 빠뜨리는 절망을 뿌리치려고 애썼다. 그는 동굴 바닥에 늘어진 축축한 힘줄에서 한발 물러났다. 테리달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광전사는 서늘한 돌더미로 만들어진 동굴 벽에 기대 현재 상황을 진중히 생각하며 문제에 더욱 집중하려고 했다. 수많은 전투를 겪는 동안에 다른 이들이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무너질 때, 테리달은 이렇게 집중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생존해왔다.

'어린 제자여, 아이어의 달이 별 중에서도 진귀한 존재임을 알고 있느냐?'

스승님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기억의 형태일 뿐만 아니라 칼라에 얽여 남아 있는 생생한 영혼의 형태로도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 소리가 우주의 끈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줬다. 테리달은 자신의 형제들과 신실하게 소통하기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수십 광년 너머에 있는, 살아 있거나 죽은 형제들의 정수를 느낄 수 있었다. 테리달은 자신의 마음속에 계속 잔물결을 일으키는 스승님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기도와 애원이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스승님, 전 우리 프로토스의 파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제 무기는 부서졌고, 저는 혼자 있습니다. 늙은 광전사 한 명이 사알록에 있는 군락지에 맞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테리달은 스승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보면 꾸짖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곤 허리를 굽혀 피가 흐르는 팔에 히드라리스크의 힘줄을 감기 시작했다. 역세고 축축한 생살이 테리달의 피부를 꼭 감쌌고, 외계 생물체 조직이 벌어진 상처를 건드리자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매듭을 단단히 조이자 어깨를 타고 올라오는 고통으로 신경이 바짝 곤두섰다. 고통은 집중력을 유지해줄 테니 나쁘지 않았다. 상처를 다 감싸자 테리달은 손을 힘을 주며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살폈다. 출혈은 멈췄다.

광전사는 희미하게 빛나는 사이오닉 검을 아래로 비취보곤 히드라리스크 힘줄이 몇 개 더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히드라리스크 힘줄은 역셀 뿐만 아니라 꿰뚫기가 거의 불가능하면서도 가죽처럼 신축성이 뛰어났다. 무시무시한 저그의 적응력은 놈들의 생살과 뼈를 인간이나 프로토스가 만들어낸 무기, 그리고 방어구와 동등한 성능을 가지도록 진화시켰다. 테리달은 다시 손을 쥐었다 폈다 하다가 거뭇한 피가 스며든 흙 속에 버려진 히드라리스크의 긴 발톱을 봤다.

'답에 다가갔구나, 테리달.'

...

히드라리스크가 먹이를 거의 먹어 치웠을 무렵, 뒤쪽의 땅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주둥이에 물려 있던 사지가 땅에 떨어지고, 그 구멍에서 뭔가 빠르게 움직이며 나타났다.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뒤로 도는 생물체와, 푸르게 불타며 호를 그리는 광전사의 사이오닉 검이 만났다.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검날이 히드라리스크의 어깨죽지를 도려냈고, 생살과 뼈를 불태웠다. 히드라리스크가 달려들어 강력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로 테리달의 팔뚝 갑옷을 물어뜯자, 갑옷의 금속이 비명을 질렀다. 광전사의 또 다른 팔에는 무기가 들려 있지 않았고 피 냄새가 났다. 그 모습은 먹잇감이나 다름없었다! 함정에 빠져 속수무책인 상태였다. 히드라리스크는 먹잇감을 공격하기 위해 길게 구부러진 발톱을 치켜들며 기대감에 젖었다. 숨이 붙은 채 꿈틀거리는 놈을 먹어 치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광전사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며 히드라리스크의 마음속으로 '소리'를 보냈다. 고대의 분노로 가득한, 시리듯 명료한 원시의 소리였다.

'괴물, 식사 시간은 끝났다. 이제 네 피 맛이나 봐라.'

테리달은 다른 쪽 팔을 휙 돌려 길게 휘어진 히드라리스크의 발톱 하나를 놈의 입에 찔러 넣었다.

...

테리달은 서늘한 새벽 여명 속에 서서 자신의 팔목에 묶어 둔 발톱에 묻은 피를 닦아냈다. 문명화 이전 시대의 먼 과거에 그의 동족들이 행하던 의식과도 같은 행동이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생각을 순수한

기운이 담긴 칼날에 집중시킬 수 있기 전의 시대였다. 이 단순한 행동은 확신과 평화로운 느낌을 가져왔다. 평화는 집중을 가져왔다.

'이 집중력을 사용하자.'

흉터가 난 광전사는 움크려 앉은 뒤 손가락을 펴 모래 위에 점을 세 개 표시했다. 그 점은 프로토스 함대의 무기 세 개를 뜻했다. 그 함대는 목숨을 잃은 테리달의 에익실리움이 신호를 보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신호는 절대 송신되지 않을 것이다. 테리달은 그 세 개의 점 아래 긴 선을 하나, 그리고 둘을 그었다. 두 개의 긴 줄. 함대가 예상한 대로 헛된 공격을 실시하기 전까지 사알록에선 한 번의 낮과 한 번의 밤이 남았다. 사알록은 아이어에 주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완전히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테리달의 고향 시간으로 거의 반나절밖에 걸리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없었다.

그리곤 테리달은 지금까지 그린 표시 주변에 사선 여섯 개를 둥글게 표시했다. 그것은 여섯 개의 신호기를 뜻했다. 암흑기사들과 동행하던 광전사들이 각각 소유했던 수정 구조물은, 네라짐의 장인들이 정확한 신호를 방출하도록 만든 소형 도구였다. 이 신호기를 이용하면 적군의 군락지에 강력한 정밀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신호기는 피에 젖은 채 테리달 주변의 창백한 모래밭에 떨어져 있었다.

테리달이 받은 명령은 신호기를 설치하는 암흑기사를 돕는 것이었다. 그 후 그 신호를 감지하고 몰려드는 저그 무리로부터 나레짐을 호위해 파괴자가 사알록의 저그들을 소탕하도록 미리 지정된 집결지 쪽으로 이동한다. 에익실리움은 사알록에서 저그가 완전히 소탕된 뒤에 구조될 예정이었다. 집정관에게 그들의 탈출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이 임무의 최우선 목표는 아이어 주변에 있는 달의 공전궤도를 머무는 함대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프로토스의 고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위치를.

이 임무가 실패할 경우 살아남은 이는 가장 가까운 집결지에 모이게 되어 있었다. 테리달은 손바닥 끝으로 예전에 왼쪽 눈이 있었던 곳의 흉터를 문질렀다. 오랫동안 가만히 있을 때면 언제나 통증이 왔다. 테리달은 집결지에서 신호기로 함대에 신호를 보낼 수도 있었다. 집정관이 그 신호를 조난 신호로 보고 수송선을 보내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니,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또한 신호기의 초자연적 소음 때문에 그의 머리 위로 더 많은 저그가 몰려올 수도 있었다. 게다가 테리달이 집결지에 도착할 때쯤이면 함대가 공격을 시작할 것이었다. 주력 함대들이 제 위치에 모습을 드러낸 뒤 약삭빠른 적에게 약점을 드러낸 채 공격 대형을 펼칠 것이다.

가망 없는 일이었다... 태양이 다시 한 번 떠오르면 프로토스 세력의 마지막 무기가 파괴될 것이다. 테리달은 충동적으로 몸을 아래로 뺀 여섯 개의 사선 주변에 원을 그렸다. 광전사의 원, 테리달이 속한 기사단의 표시였다. 사알록의 완벽한 원이었다. 순수함과 집중, 생각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다. 함대에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을. 간단한 계획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테리달의 의지가 흔들리자 그의 사이오닉 검이 연민 어린 빛을 띄었다.

테리달은 갑옷에 장착된 항법 장치로 완벽한 원 둘레의 길이를 계산해 일정 거리마다 신호기를 놓을 생각이었다. 각 신호기가 하늘로 신호를 보내면, 그 초자연적인 찬가의 진원지로 저그가 몰려들 것이다. 이건 예상한 일이었다. 하늘 위에서 기다리는 집정관은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었다.

그리고 테리달은 바로 이 상황에서 동족의 총명함과 지성에 의지해야 했다. 그는 신호기가 있는 곳에 대칭을 이루며 모여드는 저그의 집결 형태가 기존의 저그들과는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함대에 알려야 했다. 야생의 저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집정관에게 저그의 예상치 못한 지성을 이해시킬 수 없었다. 테리달의 사이오닉 검이 다시 한번 빛나며 그의 얼굴을 희미한 푸른 빛으로 물들였다.

집정관은 저그가 신호기의 작동 순서를 예측하는 것을 봐야 납득할 것이다. 놈들이 신호기가 설치된 원 둘레를 알아보고, 다음 신호기가 언제 작동할지를 계산하고, 원주의 마지막에 설치된 신호기를 공격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 테리달은 직접 자초한 기습 공격의 대상이 되어 갈기갈기 찢길 것이다.

이건... 테리달이 받은 명령이 아니었다. 이 행동은 광전사라는 이름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감히 그의 책무에서 한참이나 벗어나는 전술에 관여하는 일이었다. 테리달은 그 완벽한 원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우리 동족들이 암울한 시대에 가르침과 확신을 얻고자 그 순수함에 기대왔던 것도 마찬가지로.'

테리달은 숨진 동료들의 몸을 뒤져 신호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손바닥보다도 작은 수정구는 묵직하면서도 기이한 만듦새로 이루어져 있었다. 신호기를 들어 파인 홈에 있는 접속 부위에 손가락을 댈 때마다, 장비가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환영하듯 푸른 빛이 떠올랐다.

'아주 작은 원호가 모여 거대한 원의 둘레를 이루듯.'

그 말은 스승님이 종종 되뇌는 말이었고, 테리달은 그제서야 그 진정한 뜻을 알 수 있었다.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면 자신의 확신을 증명할 가능성이 필요했다. 테리달은 깨달음을 얻은 곳인, 그가 빠졌던 모래 구멍으로 돌아가며 자신의 상태를 살폈다. 팔엔 여전히 상처를 입었지만, 고통에는 이력이 났기에 그 묵직한 육신거림이 주의를 심하게 흠뜨리진 않았다. 기습을 당해 에너지를 다소 잃었지만, 테리달에겐 이 모든 상황이 낯설지 않았다. 또 다른 축복은 다리가 온전하다는 것이었다. 오늘 그 다리의 힘이 많이 필요할

터였다. 테리달은 언제나 강인한 다리로 뛰어 왔고, 지금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번이 그의 마지막 달리기가 될 것이 거의 확실했다.

그는 팔을 휘두르며 새로 단 발톱의 길이를 재봤다. 사이오닉 검보다 부피가 더 컸고, 없어진 건틀릿보다 방어력이 떨어졌다. 하지만 극도로 날카로웠다. 이 발톱 끝의 톱니같은 부분으로 같은 종류의 외계 생물을 손쉽게 베어 넘겼을 때 만족감은 정말 대단했다.

테리달은 신호기 여섯 개를 모두 지닌 탓에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었다. 신호기는 그의 허리띠 장갑에 자력으로 부착되어 있었다. 부피가 커서 마음대로 움직일 순 없었지만, 처음에만 그럴 뿐이었다. 각 위치에 신호기를 놓을 때마다 무게는 줄어듦 것이고, 위험은 증가할 것이다.

태양이 수평선 가까이에서 빛났다. 시간이 얼마 없다. 테리달은 웅크려서 모래에 표시했던 곳을 깨끗하게 문지른 뒤 첫 번째 신호기를 설치했다. 그는 자신의 세포를 인식해 작동을 시작하는 감지 장치가 숨겨진 흙에 가볍게 손을 댔다. 신호기가 붉게 빛나기 시작했고, 부드러운 빛은 정확히 백 한 번 번쩍인 뒤에 신호를 방출하도록 표시되었다. 테리달은 일어나서 달릴 준비를 했다.

그가 있는 방향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돌아서서 검을 밝혔다. 저그와 뒤영킨 동료의 시체뿐이었다. 괴물 중 하나가 살아남은 건가? 그는 그 지점을 조사하려 했으나...

'신호기를 설치했으니 시간이 없어.'

테리달은 달렸다. 다음 신호기를 작동시킬 위치는 전체 거리에서 보면 그다지 멀지 않은 지점이었지만, 그는 첫 번째 신호기가 꺼졌을 때 그곳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었다. 사알록에 있는 저그들 모두 신호기의 파장을 감지할 것이며, 테리달은 놈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적으로부터 들려오는 갑작스러운 신호를 듣곤 사방에서 몰려들 것임을 알았다. 테리달은 좁은 협곡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호기심에 몰려드는 적을 피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그러기를 바랐다.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테리달의 발아래에서 모래가 쇠쇠거리는 소리를 내며 퍼졌고, 그는 일정한 속도로 사알록의 새하얀 표면을 내달렸다. 아이어가 동쪽 수평선에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광경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다. 이곳 사알록에서 보니 고향의 생기 넘치는 녹색과 갈색, 그리고 대륙과 바다를 나타내는 푸른 선이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아 보였다. 두터운 뭉게구름이 양 극지방을 따라 흘렀고, 테리달은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는 그리움을 느꼈다.

그리고 신호기가 켜졌다.

비명, 포효, 끔찍한 태풍.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듯한 사이오닉 괴성이 칼라를 뒤흔들었다. 케다나가 이에 대해 귀땀을 한 적이 있다. 신호기가 켜지면 막대한 충격파가 발산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녀는

테리달에게 신호기가 활성화되기 전,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무릎을 꿇어 정신적 방어막을 펼치라고 권했다. 신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주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위의 정신 파장에 극심한 진동을 일으켜 사알록에 있는 야생 저그들을 불러모으는 것이다. 정신이 혼미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는 어느 정도 각오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테리달은 얼마간 눈을 뜨지도, 숨을 쉬지도 못하고, 칼라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혼돈이 그의 영혼을 헤집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켜진 신호기는 역시 갑작스럽게 꺼졌다.

'이 정도면 확실히 군단의 주의를 끌었겠지.'

테리달은 별이 수놓인 하늘을 올려다보며 동지를 불렀다. 폭풍 속에 길을 잃은 하나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 신호기를 주목하라, 형제들이여. 그리고 이어지는 신호기들도 주시하기를.'

자리에서 일어난 테리달은 달리기 시작했다. 눈가에 묻은 피를 닦아내고, 그는 정신을 차리려고 머리를 흔들었다.

'달려.'

발 밑에 있는 모래가 열어지기 시작했고 테리달은 어느새 자갈과 돌로 덮인 길을 달리고 있었다. 속도를 유지하는 건 수월해졌지만 발소리 또한 커졌기에 저그의 주의를 끌기도 쉬워졌다. 사막의 협곡을 신속하게 달리면서도 테리달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발걸음을 세면서 테리달은 여태껏 머리 속에 떠오른 걱정거리들에 대해 생각했다. 일부는 대처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오로지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우선, 저그가 신호기의 배치를 예상보다 너무 빨리 알아낼 수도 있다. 신호기를 충분히 배치하기 전에 테리달의 경로가 읽히면 동족들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뜻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최대한 빠르게 신호기들을 설치해야 한다. 이 속도를 유지하면서 다음 동이 트기 전에 원을 완성해야 한다.

두 번째로, 신호기들 간에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야 함대에서 전체적인 모양을 식별할 수 있다. 각 신호기 사이의 좌표와 벡터는 모두 계산을 마쳤다. 속달된 광전사라면 이 정도는 자연스레 머리에 그려진다. 하지만 길을 아는 것과 피로를 견디며 전속력으로 그 길을 완주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게다가 신호기들을 발동시킬 때는 사알록의 자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테리달이 단순히 원의 둘레를 따라 신호기를 설치한다면 문양을 완성하기 전에 위성이 회전하여 함대의 가시거리에서 벗어날 것이다. 원을 완성시키려면 이미 함대의 시야에서 사라진 원의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렇다면 테리달은 시작 지점을 기준으로 양방향에 나머지 다섯 개의 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렇게 대각선으로 먼 거리를 오고 가야 점점

커져가는 원이 함선의 시야 내에서 시작하고 끝날 테니까. 즉, 테리달은 실제 원의 둘레보다 훨씬 먼 거리를 달려야 한다. 준족인 광전사에게도 상당히 혹독한 여정이 될 것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달려야 한다. 테리달은 정정한 신병이 아니다. 그는 노병이었고 아침에도 이미 전투를 한 번 치렀다. 아마 임무를 수행하면서 심장 하나는 터져버릴 것이라고 테리달은 예상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그를 조종하고 있는 하나 또는 여럿의 정신이 자신의 계획을 간파하고 호응을 하지 않거나 자연스러운 형태로 병력을 내보낼 수도 있다. 그러면 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테리달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과대망상이다.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이다. 저그가 야생의 습성을 가장할 수 있을 정도로 영리하다면 아침에 습격할 때 이미 그랬을 것이다.

지금은 그저, 달리는 수 밖에 없다.

...

두 번째와 세 번째 신호기는 저그와 마주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었다. 테리달의 경로를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

'아직은. 세 번째 신호기의 위치까지 보면 삼각형이 그려진다. 네 번째가 규칙을 확정 짓기에 다섯 번째와 마지막 신호기를 놓을 위치는 놈들이 예상할 수도 있다.'

테리달은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를 뛰어 넘고 몸을 굴러 속도를 유지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세워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이제 허리춤에는 세 개의 신호기가 남아있다. 신호기가 줄어들다는 것은 곧 더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침에서 정오까지 테리달은 두 군데에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신호기를 설치했다. 원의 서쪽 끝에 위치한 첫 신호기 이후에 그는 원의 북서쪽과 남서쪽에 도달하여 신호기를 작동시켰다. 다음으로는 남서쪽에서 북동쪽 끝으로 가야 한다. 원의 지름에 가까운, 가장 긴 거리를 달려야 할 때이다. 만약 이 속도를 유지한다면 해가 지기 전에 네 번째 장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테리달은 이제 신호기를 켜 뒤, 달리면서 그것이 작동할 시간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는 순간, 테리달은 몇 초 동안 방어막을 펼쳐 충격파에 대비하였다.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첫 번째 사이오닉 굉음을 듣고 난 이후 잠깐 지체하는 것이 질주 중에 균형을 잃어 부상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다.

사알록의 열은 대기를 통해 깨끗하고 찬란한 햇빛이 쏟아지는 걸 보며 광전사는 끝없이 달렸다. 피부에 닿는 따스함은 테리달에게 생기를 가져왔다. 아이어 행성계의 태양은 영겁의 시간 동안 그의 종족을

보살펴왔다. 태양의 종족인 프로토스는 지혜와 민첩함을 이용해 언어와 문명이 있기 전부터 장엄한 평원과 밀림에서 수렵 생활을 해왔다. 이렇게 여름의 햇볕 아래를 달리는 것은 프로토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다.

테리달이 모래 언덕과 바위를 이용해 최대한 엄폐를 한 덕택인지 아직까지는 저그와 조우하지 않았다. 저 멀리에 대군주가 떠있는 것을 본 것 같아서 시야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자세를 낮추고 기다렸다. 아마 그 생물체는 방금 자신이 놓고 온 신호기를 향해 가고 있을 거라고 테리달은 판단했다.

오른쪽 어깨 너머로 태양이 지기 시작하자 테리달은 조상들과 자신에게 이어진 무형의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임무는 명백하다. 물론 그에게 예고된 죽음 또한 명확하다. 테리달은 흔들림 없는 발걸음을 내디디며 이상할 정도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숙인 그는 달리면서 자신의 허리에 있는 원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테리달의 계산에 따르면 바로 앞이 네 번째 신호기를 설치해야 할 곳이다. 그곳에 다다르자 그는 속도를 줄였다.

'이곳에서 세 개의 점이 네 개가 된다. 삼각형이던 모양이 하나의 원으로 바뀌는 곳. 이제부터는 내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리라.'

석회질의 산등성이 뒤로 태양이 지기 시작했다. 테리달은 희미해지는 빛을 보며 양팔을 쭉 뻗고 잃어버린 시간 동안 자신의 동족들이 숭배한 황금빛 구체에게 작별을 고했다. 남은 여정은 어둠 속에서 보내야 한다. 낮 동안 테리달을 북돋아 준 따스하고 풍부한 자양물은 이제 없다. 벌써부터 허리에 찌르는 듯한 고통이 전해져 온다. 무릎을 꿇어 모래에 신호기를 놓자 테리달은 부상당한 팔이 떨어오는 것을 느꼈다. 고민할 시간은 없다. 쉴 시간도 없다. 새벽이 되면 함대가 도착할 것이다. 신호기를 작동시킨 그는 다시 커져가는 암흑 속으로 달려나갔다.

...

차갑고 위험하지만, 테리달을 숨겨주는 밤은 무척 소중한 시간이었다. 다섯 번째 지점까지 반 정도의 거리가 남았을 때 그는 한 쌍의 울트라리스크과 마주칠 뻔 했다.

두 마리라고!

숙련된 그의 반사신경 덕택에 테리달은 신속하게 속도를 줄일 수 있었다. 옆에 있는 암벽 너머에서 낮은 주파의 웅얼거림이 들렸다. 돌출부 뒤로 몸을 숙인 광전사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자신이 구상한 길에서 지나치게 떨어져 있지 않은 이상 테리달은 여태까지 좁은 협곡을 골라서 달려왔다. 하지만 협곡이 점차 끝을 보였고 할 수 없이 절벽을 따라 이동할 수 밖에 없었다. 탁 트인 평지를 달리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저그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에 테리달은 앞에 엄폐물로 삼을 수 있는 바위나 틈, 혹은 돌출부가 있는지 계속해서 살폈다. 토레니스 프라임 공성전 때 몸에 익은 피곤한 습관이다.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반사신경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달리기의 차분한 리듬에 온 몸을 맡기고 싶을 때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습관이 그의 생명을 구했다.

울트라리스크들은 테리달의 위에 있는 절벽에서 내려오려 하고 있었다. 허물어진 절벽의 일부는 괴수들에게 발판이 되었다. 테리달은 놈들이 소통하는 소리가 주위의 암벽을 타고 전해지는 걸 들었다. 울트라리스크들은 테리달이 숨어 있는 장소 위쪽 산등성이를 밟고 지나가면서 협곡을 뒤흔들었고, 돌과 모래가 쏟아져 내려왔다. 사이오닉 검을 점화시켜 공격하려는 충동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전투와 피를 양식 삼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 피로해진 몸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었다. 하지만 싸움에서 체력과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는 것을 테리달은 알고 있었고, 둘 다 그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다.

'신호기를 위해 아껴두자. 어차피 피는 곧 흐를 테니.'

괴물들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테리달은 쉬쉬오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밤 동안에 고통은 서서히 약화되었다. 오른팔의 근육을 푼 뒤에 테리달은 발톱을 묶은 힘줄을 더욱 단단히 죄었다. 힘줄은 아직 축축했고 천천히 피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문득 테리달은 저그 감염원이 상처가 아무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이 속한 기사단에서는 그 어떤 종류의 외계 조직이나 무기의 사용을 금해왔다. 하지만 테리달은 프로토스의 살과 무기에 대한 모독보다 자신이 맡고 있는 이 임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어차피 혈액이 부족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끝날 테고.

'충분히 쉬었다. 울트라리스크들이 없어졌으니 어서 움직여야겠어.'

절벽 밑에서 기어 나온 테리달은 위를 올려다보며 밤하늘에 무언가 있지 않은지 살폈다. 아무것도 없다. 울트라리스크가 한 쌍으로 저렇게 정찰을 다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보통 놈들은 전투가 한창이고 피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뛰어들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정찰이 아닐 수도 있겠지. 프로토스 에익실리움 하나를 상대하기 위해 예상 경로에 투입한 것일 수도.'

테리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그가 이성적이며 전술에 일가견이 있는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수께끼를 풀어낼 다른 실마리라 할 수 있으리라. 그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욱 빠른 속도로. 다음 신호기를 놓으면 아마 놈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

바로 앞에 군락이 자리잡고 있었다. 테리달은 경찰대 둘을 지나쳤다. 히드라리스크의 무리와 울트라리스크 한 마리였다. 이번엔 둘 다 대군주가 한 마리씩 동행했고, 움직임으로 보아 수색 임무 중이라고 판단했다. 대군주로부터 점액이 흘러내리는 걸 보아 인근 군락에서 최근에 태어난 것 같았다. 그리고 예상대로 공기 중에서는 일벌레의 턱뼈가 딸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테리달은 소리의 근원지를 우회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이미 촉박하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신호기들을 다 설치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협곡 하나가 끝나고 다른 하나가 시작되는 곳은 사방이 트인 평지였다. 오십 걸음 정도의 별로 길지 않은 구간이었지만, 우회하려면은 이미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하기에 테리달은 결심을 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몸을 숙이고 주먹을 움켜쥔 채 그는 순간적인 힘을 발휘하여 속도를 냈다. 그리고 가슴에 원을 그리고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별빛이 가득한 대지를 질주했다.

열 걸음... 스물... 서른... 이제 거의 다..

황혼이 지는 왼쪽으로 테리달은 저그 군락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것을 바라보며 제자리에 멈춰 섰다. 두 개의 길다란 탑. 테리달이 바라보고 있는 중에도 그것은 성장하고 있었다. 천천히, 그리고 고동치며 탑은 커져갔다.

그건 등지탑이었다. 저그 생체 구조물 중 하나인 등지탑은 다 자라면 저그 비행체들을 산란할 수 있는 효소와 유전적 물질을 제공한다. 두 개의 등지탑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며, 테리달의 행동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저그는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야생의 모습을 가장하는 이전 전략이 드러났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그의 예상대로라면 하루 만에 저그는 비행체들로 이루어진 부대를 편성할 것이고, 하루가 더 지나면 그 부대는 상당한 규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신속한 병력 생산은 놈들의 특기이니까. 프로토스는 아이어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위성에 있는 치밀하고 포악한 생물체들에게 갈기갈기 찢길 것이다.

군락에서 울트라리스크 한 마리가 포효했다. 그리고 그제서야 테리달은 자신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돌아선 그는 협곡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가슴팍의 통증은 이제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거듭났다.

더 빨리.

...

다섯 번째 신호기를 설치해야 할 곳에는 이미 저그가 주둔해있었다. 테리달은 그늘진 협곡 아래 놈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네 번째 신호기가 다섯 번째 신호기의 설치 위치를 정확히 가리킨 것은 아니지만, 예상할 수 있는 두세 군데 중 하나가 이곳이다.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테리달의 예상대로라면 아마 이에 버금가는 규모의 병력이 다른 지점에도 주둔하고 있을 것이다. 치밀한 전술가라면 그럴 테니까. 하지만 다섯 번째 신호기가 놓이면, 배열에 관한 의문점이 없어진다. 마지막 위치는 명확해지고 그때는 아마 사알록에 있는 모든 발톱과 송곳니가 그곳을 노릴 것이다.

'하나씩 해 나가자. 다섯 번째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협곡은 이미 점거되어 있군.'

테리달은 목표 지점인 협곡을 굽어보는 봉우리에서 내려와 허리에 손을 가져다 댔다. 어서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나 밑에 있는 정찰대를 상대하기에는 체력이 부족했다. 울트라리스크 하나, 히드라리스크 여섯, 그리고 대군주 하나. 가공할만한 근접 전투력과 원거리 화력, 그리고 부대를 통제할 수 있는 지휘 체계까지 갖추어져 있다. 부대의 구성을 보며 테리달은 한편으로 안도감이 들었다. 저그를 조종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신호기를 설치하는 적의 규모나 형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다양한 전투에 대비할 수 있게 이런 다재다능한 정찰대를 꾸렸으리라. 체력이 남았다면 아마 테리달은 웃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조각난 무기를 차고 있는 부상당한 노병이라고 꿈에서나 생각했을까?'

테리달은 발톱이 묶여있는 팔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아직도 날카롭고 치명적이다. 저 밑에서는 경계를 서고 있는 짐승들이 테리달의 목표 지점인 협곡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공중에서는 대군주가 가스 주머니를 수축시키면서 앞으로 전진했다.

저그는 테리달의 모행성에 침략하여 그 흥포함으로 프로토스의 지혜를 무참히 짓밟았다.

이제 프로토스가 그 흥포함을 되갚아줄 때다.

신호기의 발동 스위치에 손가락을 얹은 테리달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밑에서 나는 소리로 방향을 잡은 테리달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를 양분으로 고통과 피로를 극복했다. 그리고 도약했다.

테리달은 대군주 위에 착지했고 갑작스런 불청객을 감지한 저그 생물체는 속도를 높여 앞으로 날아갔다. 한 쪽에 있는 살점 주머니에 발톱을 찔러 놓자 후끈하고 축축한 공기가 테리달을 덮쳐왔고 두개골을 뒤흔드는 사이오닉 비명이 들려왔다.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대군주를 부여잡는 도중에도 밑에서는 히드라리스크들의 쉬익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대군주가 그들을 부르고 있나 보다. 야생의 생물이라면 도움을 요청하겠지. 하지만 지적인 놈들이라면 공격을 명령하리라. 테리달은 발톱을 이용하여 추락하는 대군주를 기어올라갔고 자신이 있던 자리마다 히드라리스크가 발사한 등뼈가 일제히 꽃혔다.

'일말의 의심도 모두 사라졌다.'

대군주는 점차 빠른 속도로 추락했다. 너털너털한 구멍에서는 아직도 가스가 새어 나왔다. 울트라리스크가 앞으로 돌진했다. 대군주가 지면에 부딪히면 곧바로 들이받을 생각이리라. 하지만 테리달은 그곳에 있지 않을 심산이었다. 거대한 괴물의 발소리를 추적하며 그는 몸을 추스르고 다시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사이오닉 검을 있는 힘껏 충전하여 어두컴컴한 협곡을 밝혔다. 이번에는 꼭 빛이 필요할 것이다.

테리달은 마치 불타는 유성처럼 밤하늘을 가르고 울트라리스크의 어깨갑피에 착지했다. 팔에 감은 발톱이 다시 한 번 괴물의 골격에 굳건히 박혔다. 옆구리 쪽에서 또 다른 통증이 느껴졌다.

'갈비뼈가... 부러졌군. 목 관절에... 다가가야 해...'

그는 울트라리스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단신으로 놈들을 사냥하며 얻은 것이고, 그 경험 때문에 테리달은 자신의 종족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때의 승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얻은 것이었고, 지금처럼 과도한 달리기로 인해 탈진한 상태이거나 상처투성이의 몸으로는 힘든 일이었다. 부상당한 노병은 이리저리 날뛰는 울트라리스크의 등을 놓지 않았다. 괴물이 내지른 분노에 찬 괴성은 협곡 가득 울려 퍼졌다.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침착하게 테리달은 놈의 목으로 다가갔다.

'넬리스의 광장... 에서 있던 전투 같은.'

사이오닉 검이 불타는 궤적을 남기자 괴수의 목을 감싸고 있는 얇은 갑피가 쪼개졌고 노출된 목덜미에 테리달은 오른손의 발톱을 깊이 찔러 넣었다. 울트라리스크는 울부짖으며 마지막으로 몸을 뒤흔들었고, 손을 놓친 테리달은 공중으로 튕겨 올라갔다.

다행히 착지할 때 몸을 굴릴 수 있었던 테리달은 모래 표면에 미끄러졌다. 일어나려 하자 이미 히드라리스크들이 굽주림에 찬 쉬익거리는 소리를 내며 자신을 에워싼 것을 알았다. 곧이어 울트라리스크가 가슴팍에 피고름이 흘러내린 채로 쿵쿵거리며 다가왔다. 치명상을 당했지만 아직 살아 있었다. 테리달은 피를 흘렸고, 수적으로도 불리했으며, 체력도 바닥난 상태였다. 사이오닉 검을 해제한 그는 야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히드라리스크들이 점차 다가왔다.

넷, 셋, 둘, 하나.

신호기가 폭발하면서 사이오닉 에너지가 세차게 흘러나와 울트라리스크의 머리를 찢었다. 강렬한 푸른색과 보라색의 파동이 신호기로부터 뿜어져 협곡을 차가운 화염으로 불태웠다. 히드라리스크들도 비명을 지르며 입에서 피를 토해냈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놈들은 쓰러지면서 피아를 구별하지 않고 사방으로 등뿔을 발사했다. 협곡의 암벽들도 형이상학적인 공명에 부딪혀 움찔거렸다. 완전히 충전되어 있던 테리달의 보호막이 에너지의 폭풍 속에서 한 번, 그리고 두 번 깜박거리더니 이내 사라졌다. 무릎을

끓었을 때 테리달은 자신의 온 힘을 쏟아 부어 유년기 때에 배운 정신적 방어막을 세웠다. 행성 전체를 뒤흔드는 신호기의 최대 출력을 이 거리에서 받는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희박하다는 건...

적어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는 뜻이지.

답에 다가갔구나, 테리달.

늪은 광전사는 어둠 속으로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았다.

...

빛. 눈이 멀 정도로 떨어오는 순백색. 테리달은 눈을 깜빡였다. 시야에는 온통 흐릿한 줄기의 빛만이 가득했다.

'너무나 아름답군. 이곳은 칼라인가? 내가 혹시...?'

아니다. 빛은 있지만 목소리는 없다. 고요함. 전통에 따르면 죽음 이후의 칼라는 조화와 기쁨의 음색이 깃든 합창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테리달의 느끼는 것은 오로지 고통뿐이었다. 그는 손목으로 자신의 왼쪽 눈이 있던 곳의 흉터를 어루만졌다. 갑자기 그곳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내가 얼마나 여기에 누워있던 거지?'

테리달이 옆으로 돌아누웠다.

'빛?'

별들. 낙하하는 별들. 사알록이 유성우를 지나가고 있었다. 떨어지는 별들에서 발하는 빛이 협곡의 벽에 창백하고 멀건 잔상을 남겨놓았다. 그 찬란함이 테리달을 깨웠고 이제 그는 더욱 생생하게 망가진 몸 여기저기서 느껴지는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갈비뼈 두 개가 부러졌고 감염이 진행되던 팔은 이제 불로 지지듯이 고통스러웠다. 신호기의 괴성 때문에 머리가 아직도 어지러웠다.

'하지만 심장이 더는 아프지 않다. 그리고 이 그림자로 봐서는 아직 새벽이 밝아오기 전이다.'

테리달은 몸을 떨며 반대쪽으로 누웠다. 허리춤에 온전히 장착된 마지막 신호기가 느껴졌다.

'아주 작은 원호가 모여 거대한 원의 둘레를 이루듯.'

'이제 일어나거라, 광전사여.'

앞으로 몸을 숙인 테리달은 밀려오는 고통에 눈을 찌푸렸다. 그리고 옆으로 쓰러진 그는 이제 형태가 일그러져있는 살덩어리일 뿐인 대군주의 시체에 부딪혔다. 축축한 모래에서는 한기가 느껴졌다. 테리달은 몸을 일으켜 세워 피투성이인 시체에 잠시 등을 대고는 두 발로 일어섰다. 유성우가 슬슬 벗어나고 있었다. 지평선 너머로 마지막 화염줄기들이 점차 모습을 감추었다.

'달려라, 광전사여. 아이어를 위해 달려라.'

그리고 테리달은 달렸다. 처음의 열댓 걸음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다시 모래에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다시 일어난 그는 계속 달리기 시작했다. 다음 목적지까지는 방금 달려온 길의 절반보다 약간 긴 수준이지만 심장이 터질 듯 아파왔다. 그리고 시야가 흐릿해 보이는 것도 떨쳐내기 힘들 것 같았다.

'달려라.'

테리달이 달려온 절벽의 끝에서 그림자가 점차 가셨다. 그는 더 빨리 달리려고 노력했고 광전사들의 특기인 한결같고 신속한 움직임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모래가 자갈이 되었고, 바위가 되었고, 다시 모래가 되었다.

'더 빨리.'

그는 더 빨리 달렸다. 고통이 잦아들고 테리달은 이것이 죽음이 엄습해오는 먹먹한 느낌이라는 걸 깨달았다.

'더 빨리.'

모래에 닿는 그의 둔탁한 걸음이 암벽에 메아리 쳤다. 메아리는 점차 커져갔고 이내 쿵광거리는 소리로 변했다. 밀려오는 듯한 소음의 물결. 울트라리스크다. 공기 중으로 날카로운 굉음이 들려왔다. 저그가 뒤따라왔다. 군단을 기만한 생물을 사냥하려는 굶주린 괴물들이다. 이제 테리달의 경로가 명확해졌다. 날이 밝아오며 그를 가리던 장막도 사라졌다.

'더 빨리.'

협곡 양쪽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졌다. 저글링들이 테리달과 평행하게 달리고 있었다. 그의 속도에 맞추어 내려올만한 곳을 찾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뒤에서 나는 우르릉거리는 소리는 더욱 커졌다. 산꼭대기에서는 이제 햇빛이 들기 시작했다. 새벽이 온 것이다.

그 순간 테리달은 협곡에서 빠져 나와 탁 트인 자갈밭에 도착했다. 자신의 최종 목표가 눈에 보였다. 고대의 분화구. 사알록의 표면에 새겨진 둥근 지면이다. 아이어에서도 이 분화구가 보이리라. 더는 엄폐할 곳이 없다. 숨을 곳도 없다. 단지 달릴 뿐이다.

소리가 더욱 커졌다. 발톱이 암석에 부딪히는 소리와 저글링들이 악착같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놈들은 빠르다.

'하지만 놈들은 광전사가 아냐.'

'더 빨리.'

흔을 불사르는 마지막 질주. 테리달은 자신도 몰랐던 곳에서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분화구에 점차 다가가면서 그는 허리띠에서 신호기를 떼어냈다.

'필히 매복해있을 것이다. 신호기를 그 전에 가져다...'

분화구의 입구에 울트라리스크가 보였다. 한 마리 더. 어제 밤에 본 그 한 쌍의 정찰대이다. 서슬 퍼런 낫과 같은 칼날을 부딪히며 놈들은 분화구의 가장자리를 따라 테리달을 향해 쇄도해왔다.

'아이어를 위하여!'

테리달의 함성이 칼라를 뒤흔들었다. 강렬하고 명확하며 힘든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외침. 그리고 메아리치는 그 외침에 다른 이들도 동참했다. 테리달의 부름에 응한 목소리들이 울트라리스크의 포효에 버금갈만한 함성을 내질렀다.

'아이어를 위하여! 아이어를 위하여!'

푸른 빛의 에너지 광선이 새벽의 하늘을 가로질러 울트라리스크를 강타했다. 뼈와 피가 용솟음치며 주위에 흩뿌려졌고, 세 대의 프로토스 공허 포격기가 선혈의 비를 맞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 뒤로는 열 대 정도되는 정찰기가 따랐다. 프로토스 편대는 웅장한 소리를 내며 무시무시하게 과열된 입자로 대기를 찢었다. 뒤를 돌아본 테리달은 처음으로 무엇이 자신을 쫓고 있었는지 보았다. 저그의 군대였다. 수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히드라리스크, 바퀴, 그리고 저글링들. 혹독한 열기에 울트라리스크들이 고통에 찬 괴성을 질렀지만, 공중에서 쏟아지는 맹공격에는 속수무책이었다. 화염의 폭풍에 휩싸인 저그 중에서 협곡의 가장자리에 있던 놈들만이 대피할 수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린 테리달은 무릎을 꿇고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는 느낌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팔의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고 가슴팍은 텅 비어 있다. 모래에 쓰러진 그는 자신의 축 늘어진 손가락 사이로 마지막 신호기가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지평선 위로 아이어가 태양과 함께 떠올랐다.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황금빛과 푸른빛의 완벽한 조화.

하늘에 아이어가 뜨는 모습을 바라보며 테리달은 칼라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네, 집정관님의 말씀이 옳으셨습니다. 그 광전사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왔다고?'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왔습니다.'

테리달은 답을 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몸이 도저히 말을 듣지 않았고, 목소리는 약하기 그지없었다. 칼라에는 숨이 넘어가는 얇은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함대를... 귀환시키시오, 집정관. 다시 불러들이시오.'

순간의 침묵이 지나고 하늘에서 누군가의 말이 울려 퍼졌다.

'우리는 그대의 표식을 보았다, 광전사여. 이제 집정관이 그 의미를 검토할 것이다. 그 동안 함대는 귀환하라. 아이어도 하루 더 기다려 줄 것이다.'

'엔 타로 아둔, 광전사여.'

고개를 끄덕인 테리달은 반짝이는 하얀 모래가 뺨에 스치는 것을 느꼈다.

'엔 타로 아둔.'

순간 테리달은 아이어에 서있는 자신을 상상했다. 그는 스승과 함께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멀 듯이 빛났다.

'사일록이... 오늘 밤 무척 밝습니다. 참으로 밝아요.'